

한국의 건축가 8 - 이천승(1)

Korean Architect, Lee Cheon-Seung

성장배경과 건축활동

권태문 / 공학박사, 건축사
by Kwon Tae-Moon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 성장배경과 건축활동
- 한국건축계의 리더



이천승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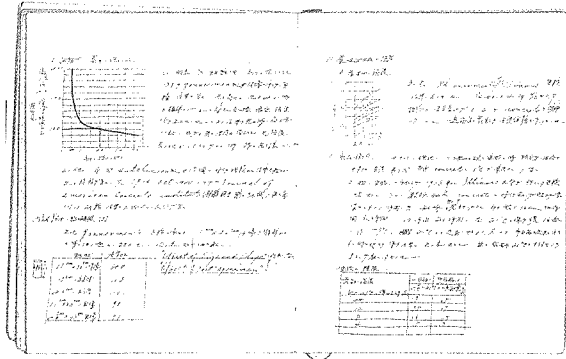
성장환경

선생은 한일합방이 체결된 1910년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태어나 전통적인 한국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러한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은 성장기부터 강한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하였고, 논리적 사고력, 예리한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 등 우월한 개인적 능력을 배양시킨 토양이 되었다.

건축수업

당시 한국에 설치되어 있던 고등교육기관은 경성고등공업학교였으므로 선생은 이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원래 회화에 관심을 가졌던 선생은 일본 게이오제국대학으로 유학하려 하였으나 부친의 사망으로 포기하고, 미술수업이 가능했던 이 학교 건축과를 택하게 되었다. 당시 건축가로는 박길룡선생과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수 이균상선생이 계셔서 이 분들의 활동과 가르침에 배움이 컸다고 회고하였다.

엘리트 의식과 재기가 넘치는 선생은 학창시절 건축 전공과목만이 아니라 일반과목도 열심히 하여 이 학교 졸업시 한국인으로는 경이롭게 전교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전교 1등을 하려면 한국학생에게는 금기시 되던 사격술 학점을 확보해야 되었는데, 선생은 집념으로 일본인 교련선생을 감동시켜, 그의 배려로 사격연습을 더 할 수 있었고, 높은 점수를 받아 대망의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건



경성고등공업학교 학생때의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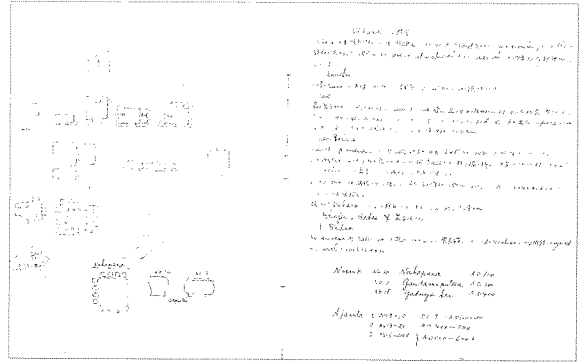
축수업기인 1931년, 경성고등공업학교 2학년때 박길룡선생의 배려로, 화산백화점 동관 설계의 실습생으로 참여하면서 건축을 이해하게 되었다.

건축실무

1932년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인 193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취직되어서 만주로 떠나게 되었다. 졸업후인 1932-33년의 5~6개월 동안 경성박길룡건축사무소에 근무하였다. 이 사무소에는 한국 건축계의 선배들이 많이 모여서, 선배들의 친목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선생은 일본인 중심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을 극복하고, 좀더 넓고 새로운 현대건축의 지식을 수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지원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본격적인 건축실무는 1933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지방부 공사과의 설계팀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만주는 만주국건설이라는 일본정부의 거점 건설사업장이었으며,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이 사업의 주체였으므로 사업규모가 매우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축계 엘리트(동경제대, 와세다제대 및 게이오제대 등) 및 외국 건축인들도 상당수 활동한 국제화 작업장이었다.

선생은 그때부터 동경제대 출신의 엘리트 동료들에게 책과 노트를 빌려서 일본에서 가르치는 건축학 전과목을 외우다시피 열심히 탐구하여 건축의 지식을 높여갔으며 전력을 다하여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회고하였다. 입사 후 5년이 지난 1938년 회사내의 현상설계로 만주대련역사의 설계안 공모가 있었다. 남만주 철도주식회사에는 설계를 맡은 부서가 3개 있었는데, 선생은 지방부 공사과의 계획안 작성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 응모안이 당선되어서 실시설계와 공사감독을 하게되는 기회를 얻었다.



「남만주 철도주식회사」 시절 일본인 동료에게서 빌려 공부한 노트

대련역사의 규모는 현 서울역보다 몇배 크고, 동경의 우에노역 처럼 승하차객 동선을 층별로 분리한 안이었는데 선생 자신도 자기의 대표적 건축작품이라고 회고하였다.

이 작품을 계기로, 선생은 당시의 요구상인 만능기술자적 건축가상에서 벗어나, 건축의장 중심의 건축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선생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의뢰된 만주국 수도 신경(장춘)의 도시계획을 위한 종합데이터보고서 작성 작업팀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인 도시계획의 전문분야 기술자들과의 협력과 도시계획학의 독학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인 도시계획 이론도 습득하게 되었다. 선생의 이와같은 현대건축 및 도시계획이론과 실무경험은 해방 후 한국 건축계 및 국가재건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만능 건축가

제2차대전 말기로 만주지방이 어수선해진 1943년, 선생은 서울로 귀향하였다.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건축가상은 건축의 모든 분야 즉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등을 완전히 마스터한, 건축에 관해서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건축기술자였다.

선생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10년간을 통해, 일본에 수용된 현대건축 및 도시계획이론을 습득하고, 실무를 통해 그 이론을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한국의 현대건축 수용에 주역이 될 수 있는 만능 건축가로 발전하였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도 서울의 화신동관, 영보빌딩의 설계 등 한국의 건축계와 교류하여 왔다. 선생의 귀경당시 서울의 경제계도 어려워 건축계가 불황이었으므로 1942년 화신산업 창업자 박흥식장이 추진한 조선비행기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안양 비행기 제조공장 및 격납고 등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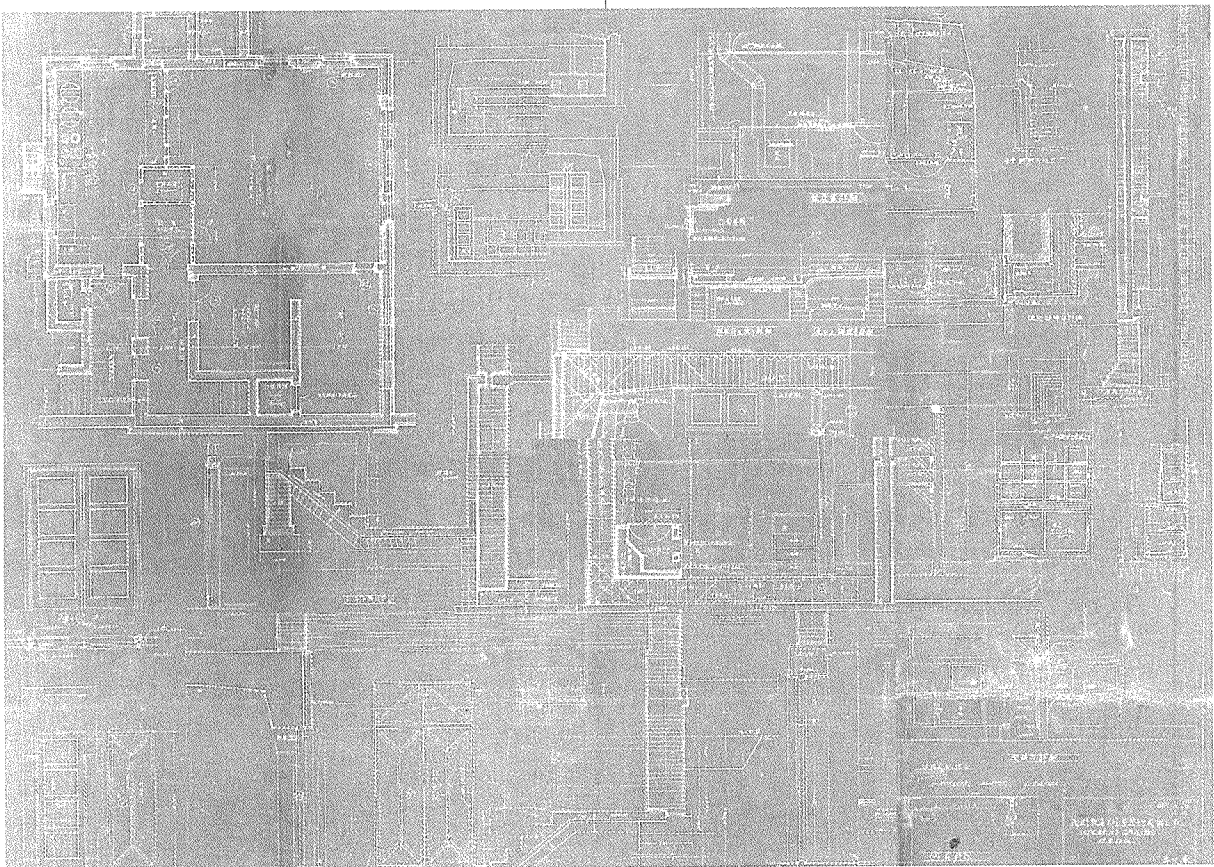


당시 서울시 마스터플랜(강남)

계하였는데 이 회사는 징용면제 혜택이 있어 김태식, 김중업씨 등도 재직하였다.

건축활동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국은 모든 면에서 새로 시작하는 국가가 되었다. 건축가로 활동을 시작한 선생은 1946년 한국 최초의 건설분야 연구소인 『도시계획연구회』를 이회태씨와 개설하여서 도시계획문제, 특히 주택문제(주택개량, 문화주택, 주택건설 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후 서울공대 토목과, 건축과에 도시계획과목이 개설되어 선생이 그 강의를 맡았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 피난시절을 맞는다. 이 기간동안 주원씨(전 건설부장관)를 만나고,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던 전예웅씨의 도움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을 착수하여 현 서울시 마스터플랜의 근간을 이루었다. 1950년 국회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 최초의 건설관련법인 건축법, 건축사법 및 도시계획법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현 건설관련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3년 환도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약하였고, 당시 정부의 끈질긴 교섭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을 고사하고 건축가로 자유분방하게 활동하였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시절 작업한 선생의 싸인이 있는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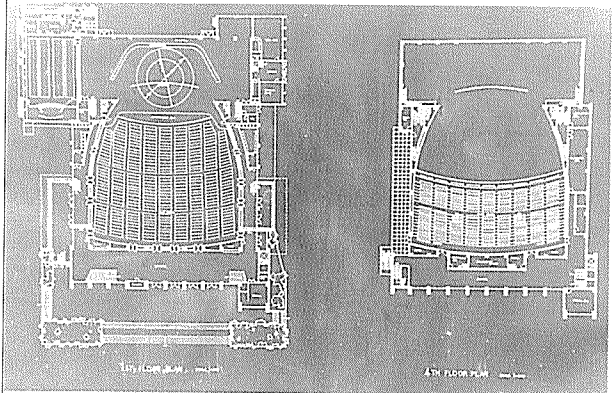
건축설계 외에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 강사로 출강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종합건축연구소』를 김정수씨와 같이 개설하였는데, 박길룡선생 작고 후에 그 사무소에 남겨진 모든 업무를 정리하였으므로 박길룡건축사무소를 잇는 건축연구소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건설에 따른 주요건물 등 많은 건축설계를 수주하여, 한국 건축가에 의한 본격적인 현대건축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우남(시민)회관, 조폐공사, 공군본부,
- 신신백화점, 국제극장
- 이화여고 교사, 진명여고 3·1당
- 삼양사 전주공장
- 동아일보 사옥 및 여의도 공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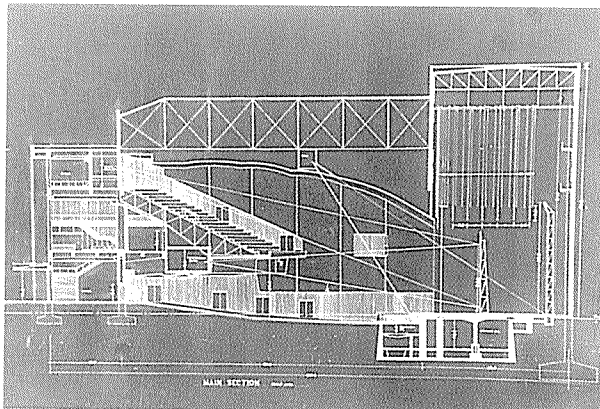
특히 주요 관공서 건축설계는 현상설계로 공모하였는데 『종합건축연구소』응모안의 당선과 그 현상설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선생의 위치에 대해서는 건축계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불모지인 한국 건축계에서 한국의 엘리트들의 작업에 의해 창출된 건축작품들은 한국 현대건축의 정착에 바탕이 된 중요한 업적들이었다. 1955년부터 준비된 국회의사당 건설을 위해 선생은 세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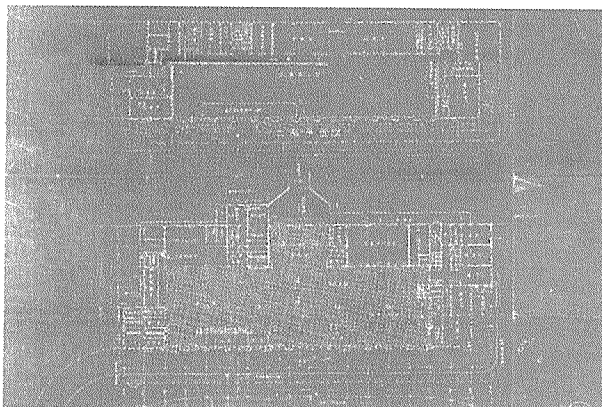
우남회관



우남회관 평면도



우남회관 단면도



만주 대련역사 평면도

개국 국회의사당을 시찰 조사하였고, 국회사무처의 위촉으로 1959년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공모작업을 주도하였다. 이 현상설계는 일본에서 응모한 김수근씨 등의 응모안이 당선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1960년 전후의 일본건축 수준을 알 수 있었고 한국건축계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1960년 5·16군사혁명으로 모든 정부관련직에서 떠난 선생은 부동산회사인 흥한도시관광주식회사를 화신산업 박흥식시장과 설립하고 현재 강남지역을 대상으로한 남서울 도시계획을 최경렬, 김윤기, 이봉인, 전세경씨 등 건축, 토목계의 거인들과 함께 진행시켜, 현재의 강남지역 도시계획에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홍익개발주식회사의 사옥설계 및 감독을 하였고, 말년에는 동아일보 김상만회장의 초청으로 동아일보 본사의 설계 및 감리를 하였고, 고려대학교 안암동병원 신축공사의 감독을 끝냈다. 선생은 젊은이 못지않은 건강을 자랑하면서 건축계의 후배들과 교류를 즐겼으며, 건축관련 업무에는 양보없는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1992년 초 겨울 82세로 그렇게 즐겨오던 바둑을 두면서 타계하였다.